

아들과 함께 이어가는 현대화 농업의 꿈

— 휘남현 조양진 신승촌의 실농군 윤창환을 만나보다

통화시 휘남현 조양진 신승촌에 위치한 윤창환(64세)의 근 1,000평방미터 되는 농기계창고에는 수십대의 현대화 농기계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이앙기 7대, 대형 트랙터 5대, 파종기 2대...

윤창환은 국가의 지원으로 10여년 전에 건설한 농기계창고와 육속 구매해들인 농기계들까지 가치가 도합 근 2,000만원에 달한다고 기자에게 소개했다.

농기계창고 북쪽에는 500평방미터 짜리 벼도 육종 전용 비닐하우스 10채, 750평방미터짜리 남새비닐하우스 3채가 우뚝 서있다.

윤창환, 조명자(62세) 부부는 일찍 린근에 소문난 실농군이였다. 이들 부부는 2000년대 중반에 휘남현삼통하비생산전문합작사를 설립하여 근 60헥타르의 논을 부쳤다. 후에 촌민들이 한집 두집 합작사에 가입하면서 신승촌의 근 300헥타르 되는 논 전부가 삼통하비생산전문합작사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운영되였다. 당시 삼통하비생산전문합작사는 휘남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농업합작사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윤창환은 항렬에서 여섯째인데 7형제중 대부분이 한국에 나가 있다. 그는 비생산전문합작사를 운영하면서 길림성농업농촌청, 휘남현농업국, 조

양진농업과학기술보급소의 농업전문가들과 자주 접촉하다 보니 현대화, 기계화 농업의 중요성을 남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른 형제들과 달리 외국 로무를 하루도 한 적 없는 윤창환이지만 한국, 타이, 대만 등 나라와 지역에 농업고찰만 여러 차례 다녀왔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삼통하비생산전문합작사를 진짜 현대화한 농업합작사로 운영하려는 포부에서였다. 그외에도 2007년부터 신승촌 당지부 서기와 촌민위원회 주임을 3기째 맡아오면서 신승촌에 민속촌을 건설하여 촌의 관광업과 료식업, 숙박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연변주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도 고찰학습을 다녀왔다.

이렇게 상승가도를 달리던 윤창환은 2016년에 막부득이한 정황에 맞닥뜨려 모든 직무를 내놓아야만 했다. 2015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몇달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창환, 조명자 부부는 윤로류(尹老六, 윤씨네 여섯째) 가정농장을



휘남현 조양진 신승촌의 실농군 윤창환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농장에서 부치는 논은 30헥타르로 이전에 비해 근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호주이고 주요 노동력이었던 윤창환의 신체 상황이나 활동 능력이 이전보다 많이 못해졌기 때문이다.

윤창환에 따르면 신승촌에는 60세 미만의 '젊은' 당원이 없는 관계로 조양진당위에서 파견한 젊은 간부가 윤창환의 뒤를 이어 촌당지부 서기와 촌민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다. 현재 신승촌에는 277가구에 1,032명의 호적

인구가 있는데 그중 상주인구는 124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로인이다. 경작지 면적은 330헥타르에 달하는데 논이 285헥타르, 밭이 45헥타르이다. 예전에 삼통하비생산전문합작사에서 부치던 논 대부분은 이웃 한족 마을 흥덕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국홍의의 길림성삼화농장유한회사에서 부치고 있다.

가정농장의 벼 재배면적이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윤창환은 신심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들 윤홍조(38세)가 중국농업대학 농업기계전공을 졸업한 후 몇년간의 객지 생활을 접고 고향마을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든든한 농사 조수로 되였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실농군 부모님의 농사 경험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익혀왔던 윤홍조는 마치 물 만난 고기마냥 농기계를 직접 수리할 뿐만 아니라 농사일전 과정에 뛰어들어 가정의 농사 주축으로, 윤로류가정농장의 상속자로 되어 휘남현에서도 벼농사로 소문난 신승촌의 현대화 농업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유경봉 오건 정현관 기자

당나귀 사육으로 '돈주머니' 두둑



휘남현 경양진준기식용당나귀번식장에 들어서면 수십마리의 당나귀들이 우람한 몸집으로 느릿느릿 거닐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당나귀의 말랑말랑한 눈동자와 순박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이곳에 생기를 더해 주고 있다.

번식장 책임자 념영인은 "우리 번식장에는 사육중인 당나귀가 60마리 됩니다. 우량 품종도 있고 과학적으로 개량한 대형 당나귀 품종도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념영인에 따르면 다른 대형 초식동물에 비해 식용 당나귀는 사료 섭취량이 적다. 옥수수짚이나 마른풀 같은 사료로도 일상 영양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 사육 비용도 크게 낮아진 장점이 있다.

료해에 따르면 번식장은 '회사+합작사+농가' 생산, 판매 일체화 모식을 탐색하여 주변 농가와 긴밀한 공동체를 결성하고 전체 사육 봉사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로써 당나귀 선별 및 과학적 사육 등 기술적인 지도에서 완제품 당나귀의 도축, 가공, 시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촌민들이 당나귀 사육 산업에 의존하여 '돈주머니'를 불리고 있어 이 특색산업으로 인한 촌민들의 치부의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 대상은 2024년 7월에 정식으로 건설되어 사용에 투입되였다. 대상 부지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 그중 표준화된 당나귀우리 면적이 600평방미터에 달하며 2,000평방미터의 넓은 운동장까지 있다. 과학적인 공간 배치는 당나귀의 성장에 량질의 환경을 제공했다. 대상은 과학화, 규모화 사육 관리를 통해 이미 통화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당나귀 사육, 번식 기지로 발전했다.

휘남현당위 선전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경양진준기식용당나귀번식장은 '당나귀위탁소' 사육의 새로운 모식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인삼+당나귀고기' 특색산업의 발전 경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사육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5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규모' 발전의 길을 모색하여 농민들의 소득 경로를 한층 더 넓힘으로써 당시 농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허경오(许敬尧)

서양파리, 장안촌의 '효자' 농작물

휘남진 장안촌, 한창 자라고 있는 서양파리 모종이 눈길을 끈다. 촌민들의 정성스런 재배를 거쳐 이 모종들은 밭에 옮겨졌으며 밭고랑마다 두꺼운 비닐을 덮어 서양파리에 따뜻하고 습윤한 성장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모종이 6~7개 잎으로 자랐을 때 촌민들은 첫번째 비닐을 벗겨내는데 이때 서양파리는 꽃과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다. 서양파리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촌민들은 지지대를 만드는데 이로 인해 서양파리는 가지런히 자라면서 통풍과 채광이 원활해진다. 동시에 잡초를 제거해 밭을 깨끗이 유지한다. 모종을 옮겨 심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꼭대기 순을 잘라주어 생장을 멈추게 하고 영양분이 열매에 집중되도록 한다. 촌민 서효려는 "서양파리 순을 자른 후에는



가지가 자라게 한다. 너무 많거나 뻣뻣한 꽃과 어린 열매를 솎아내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여 열매의 품질을 보장한다. 이 모든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밭고랑마다 서양파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장안촌 촌민들은 한창 영글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

/길림일보



림하 중약재 생태경제가치로 전환

최근년간 휘남현은 국가 중의약사업의 발전 기회를 틀어쥐고 삼림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림하문장'을 활발히 써왔다. 현재 전 현 10개 림하중약재재배기지의 총면적은 6.1만무에 달하고 년간 생산액 11.28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바 삼림자원의 생태가치와 경제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휘남현은 13만 800헥타르의 림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림피복률은 50.8%에 달한다. 11.56만헥타르가

넘는 삼림 보유량은 휘남현의 중약재 성장에 우수한 환경을 제공한다. 휘남현은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원칙에 따라 11개 향진과 4개 국유림장에 맞춤형 재배 방안을 제공했다. 그중 3.8만무의 인삼 재배 적합지에 야생 생장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림하삼을 재배하고 1.77만무의 토지에는 오미자, 천마, 황정 등 약재를 집중 재배하고 있다.

한편 맹목적인 발전을 방지하기 위

해 국가림업초원국의 '생태 재배', '야생 육성', '야생 생장 모방 재배' 등 세가지 원칙을 실행 지침으로 재배 밀도부터 록색 예방통제까지 매 절차마다 기준을 작성했다. 동시에 대학교 교수 및 림하삼 재배 전문가를 초청해 집중 교육, 현장 토론 등 방식으로 향진, 기관, 재배업체에 종합적 기술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손수 실용 기술들을 전수하면서 림하삼 중약재 재배, 일상관리, 수토 유지 등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여러 산업 경영주체가 국가, 성급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친 우량종자나 품질이 안정된 신품종을 우선 사육하도록 인도하여 종자 품질을 확보하고 원전에서 품질에 대한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현재 휘남현의 여러 림업부화기지의 종자, 묘목은 전 현 림하삼 재배 산업의 발전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길림일보

